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이항로 진안군수 발품 성과

용담 · 안천 활성화사업 등 3개 지구 선정… 신규사업비 130억원 확보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품행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군수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2018 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해 부처 관계자와 진안출신 관계자를 만나 현안사업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 성을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농립축산식품부 가 주관하는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 발 신규 공모사업에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3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작년에 이어 4년 연속 신규 공 모 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올해 신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용 담면과 안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 업 '일반지구' 2건에 각 60억원씩 120 억원과 원연장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건에 10억원이다.

특히 이 군수는 2017년 시범사업으 로 전국 지자체 대상 1개 지구인 '진 인읍 통합지구 <u>농촌중심</u>지 활성화사 업'의 120억원 확보에 대해 중앙부처 발품행정의 결실로 선정되어 타 지자 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선정된 시업들을 성 공적으로 마무리해 낙후되 지역의 정 주여건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7개 지구 공모 선정

천천 · 계남 활성화사업 등··· 국비 126억 포함 180억 확보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하는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26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신청방법으 로 선정되는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 하여, 장수군은 1년 전부터 민·관이 힘을 모아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맞춤 형 역량교육과 소액시업, 현장포럼 등 단계별로 이수사항을 준비해 왔다. 발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공모사업 준비를 한 결과 2018년도 신규사업에 7개지구가 선정

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천천면과 계남면 농 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60억원씩 4년 동안 120억이 투자되며, 창조적마을만 들기 시업은 4개 마을(장수읍 대덕, 산서면 신월·사창, 천천면 중상)에

문화 · 복지 시설 확충과 주변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별로 5억원씩 2년 동안 총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시범공모사업인 맑은물푸른농 촌사업(협업지원형)은 금강을 중심으 로 하는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40억원을 투자한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성실한 사업 추 진과 함께 신규사업 공모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두문마을, '풍경 있는 마을' 공모 선정

도에서 1억7000만원 지원받아… 마을진입로 · 축제장 주변 조경 사업 추진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이 '2018년 풍경이 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사 업에 선정돼 전북도로부터 1억7000여 민원을 받게 됐다.

'풍경이 있는 농·산촌 가꾸기 공모 시업은 전북도가 전통이 살아있는 아 름다운 농ㆍ산촌 경관을 재현하기 위 해 시행하는 것으로,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등 5개 마을이 선정됐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 낙화놀 이의 고장 두문마을은 마을사람들이 주축이 돼 전통 민속놀이를 되살리고 '마을로 가는 축제', '반딧불축제', '낙화놀이 축제'등을 통해 계승·발 전시키고 있는 곳으로, 이번 공모에서 는 마을 인지도 상승과 관광객 증가 에 걸맞는 마을환경 개선이 뒷받침돼 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무주 두문마을 낙화놀이 불꽃이 춤추는 마을 축제 현장

두문마을은 마을축제장과 진입로 주변에 나무(배롱나무, 소나무)와 꽃

(백일홍)를 심어 마을자연과 낙화놀 이의 고장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말산업 인재양성 요람 만들겠다"

김재용 신임 한국마사고등학교 교장 취임

"한국마사 고등학교를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말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 으로 발전시 키겠습니다"



일자로 한국마사고등학교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한 김재용 교장(사 진)의 각오다.

김 교장은 장수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첫 발령 받은 이 후 도내 여러 교육·행정기관에서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다년간의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 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는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믿 음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마사고를 '2018년도 말

산업 인재육성의 메카 로 만들겠 다는 전임 교장선생님의 학교비전 을 계승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 말 산업 인재육성 교육의 장 에 맞는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교사의 수업 혁신, 민주적인 학교운영시 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 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추진과제가 실현되 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 모가 한마음이 되어 소통하고 협 력함으로써 마시고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믿음을 줄 때 학 교발전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 라며 "구성원 전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장은 끝으로 "한국마사고를 말산업 선진국의 학교들과 견주어 도 결코 뒤지지 않는 최고의 말산 업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데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 지를 피력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농·특산물대축제 제안공모

22일까지 전 공무원 대상

무주군이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 물대축제 개최(11.3.~5.)를 앞두고 9 월 22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농ㆍ특산물대축제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 행하는 것으로, △도시소비자와 관광 객 유입을 위한 제안,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이벤트 및 체험부스 운영 관련 아이디어, △지난 축제에

대한 보완책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무주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 로, 머루・포도의 날을 비롯해 사과의 날, 천마·인삼의 날이 운영되며 농산 물 즉석경매, 체험,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또 친환경 농ㆍ특 산물을 비롯한 곤충, 전통농기구, 기 능성버섯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가족의 행복' 직장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5일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의 이 해를 높이기 위한 직장교육을 군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 원센터 전문강시인 유현숙씨를 초빙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의 행복'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

진안군은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민들기 위하여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모휴게실 운영과 임신부 전 용의자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및 매월 2회 모든 직원이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친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하여 최근 현장심사를 받았으며, 11월중 최종 선 정을 기다리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계파출소,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장수경찰서 장계파출소는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기존 공급자 위주 순찰방식은 주민요구가 제대로 반 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장소 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로 전환하여 주 민친화적 순찰과 체감안전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장계파출소는 먼저 주민들이 희망하는 순찰선을 반영하고자 경찰에서 운영하 는 온라인 휴대폰 국민제보앱 순찰신문 고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설문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관 내지도를 제작·비치, 주민들이 희망하 는 순찰시간 · 지점 등을 중점으로 탄력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탄력순찰제의 주요골자는 주민요청 및 112신고 등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찰주기를 지정하고, 주민접촉형 순찰 시 거점에서 5분, 50m 내외 도보순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 나서

진안군은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 효 율성 향상과 운전자 및 승객 불편을 초 래하지 않는 비디오카메라를 도입해 단 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월 단속 비디오카메라를 구입 설치했다.

기존 장비인 광투과식 무부화 검사 장 비는 운행 중인 차를 갓길로 유인 5~10 분 정도 정차, 공회전을 해야만 배출가 스랑을 측정할 수 있어 운전자의 큰 불 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 라를 도입함으로써 운행차량 단속에 박 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진안군 등록된 자 동차 13,299대 중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이 3,024대로 22%를 차지해 비디오 카메라 단속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